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사도행전 10:1-23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백이십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목장에 키우는 소나 말의 엉덩이나 귀에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 소유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백 이십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고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백성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부음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임함으로 인해 이방인도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을 통해 이방선교에 대한 계획과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집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에게는 뭔가 있었습니다.

1. 경건한 사람

(행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란 신앙전부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참 신앙은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이 더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경건하면 외적으로 경건이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경건이란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건강한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떠난 경건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 4:7)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딤후 4: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야고보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경건을 구제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반대는 위선입니다. 바리새인의 약점은 경건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본질적으로 나빠서 위선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위선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2.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 10:3)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행 1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있습니다. 4 절에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빚내서 돕지는 마십시오. 도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와 주었으면 받을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있다는 것은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에 쏟아 놓기에 바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물질을 잘 활용하는 사람, 물질을 사용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며,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행 10: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행 10:6)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는 격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라고 정확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한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사도행전 10 장 9 절부터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고넬료만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천사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고 한다면, 서로 난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미리 사람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소 부족해 보여도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역이 잘 진행되어 지지가 않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 시에 6 시에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예로, 새벽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공부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람과 갑자기 급히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통해서 명확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고 쉽게 일하십니다.

기도도 명확할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교회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하며 구제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마음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개인의 능력은 조금 부족한 듯 보였지만, 기도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으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 경험하신 구체적인 음성과 계시를 나눠 주십시오.
4. 구제(이웃사랑)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주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